

美 하원 국제위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

낙태·성폭력 등 日帝 만행, 국제사회에 각인

日, 방해로비로 한때 폐기 위기
한인사회·NGO, '맞로비' 펼쳐



일본의 중군위안부 동원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14일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가 13일(현지시간) 2차대 전 당시 일본의 중군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강제력은 없지만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미 의회에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 2001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하지만 일본측의 집요한 방해로비에 밀려 미 의회에서 표결은 커녕 갑론을박을 위한 의안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이번이 폐기됐다. 미 의회는 이 문제 뿐 아니라 일본의 전쟁포로 학대 등 일본 과거사 문제엔 골머리를 빚어왔다. 일본은 이번에도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일본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하고 미국내 친일파 의원들을 앞세워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들에게 상당한 압력과 회유를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당초 지난 6월 상정·심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6월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 한때 이 결의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또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위안부 결의안 채택은 외교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내 한인사회와 위안부 관련 NGO(비정부기

구)들도 '맞로비'를 펼쳐 위안부 결의안 처리 여부가 한일간의 자존심을 건 외교전의 양상을 띠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번이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무엇보다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결의안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 레인 에번스(일리노이주),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하원 국제관계위 소속 의원 11명을 비롯해 하원 의원 52명이 서명했다. 또 미국내 한인사회 등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 결의안 통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지역구 의원에겐 편지보내기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점도 상당부

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의안은 위안부 강제 동원이 20만명에 이르는 등 20세기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 가운데 최대 사건임을 적시,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과거 일본의 만행을 되새겨보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 위안부에 대한 폭행, 강제낙태, 성폭력, 인신매매 등이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조정됐고 전후 배상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최근 일본 교과서에선 이 문제를 축소하거나 정부역할을 과소평가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中, 고구려사 왜곡 일부 시정 조치

학자들 "조공관계로는 고구려사 편입 설명 안돼"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가 한국의 요청에 따라 고구려사 왜곡사료 일부를 시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선양(瀋陽)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고구려 유적 오녀산성이 소재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환런(桓仁)현 정부가 지난 7월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구려는 중국 역사상 북방 지방정권 관할에 있었던 소수민족(高句麗是我國歷史上地方政權管轄內的少數民族)'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 6월 랴오닝성측에서 환런현 홈페이지가 내용을 수정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왔지만 수정된 내용도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수정을 요구한 끝에 삭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환런현 정부는 왜곡된 고구려사료 전시하고 있는 오녀산성 사적지열관도 새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이유로 올해 6월 폐관했다고 총영사관측에 통보했다. 또 최근 백두산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지린성(吉林省) 관할 지린시에서도 작년 7월 고구려 웅담산성 입구에 있는 고구려사 왜곡 안내 간판 6개 가운데 2004년 8월 한중 고구려사 양해사항 합의 이후 설립된 간판 4개를 철거했다고 총영사관측에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한 역사학자는 고구려가 중국의 중앙정권에 조공을 바쳤다는 이유로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 연변(延邊)대학의 박찬규(조선족) 교수는 지난 10~11일 지린(吉林)성 연지시 휘징호텔에서 열린 중국 사회과학원과 공동 주최한 '2006 고구려문제 연구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고구려가 중국 중앙정권에 예속된 지방정권이었고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중국사의 일부라는 관점은 똑같이 조공관계만 관여했던 백제, 신라 왜의 역사와 지방정권이 중앙정권과 빈번히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양=연합뉴스

北 "고구려는 베이징까지 점령한 독립국"

다큐멘터리서 日 저명학자 초청 주장

북한이 자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고구려가 한때 현재의 중국 베이징(北京) 일대까지 진출한 강대한 자주 독립국이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북한이 가미민족 정복왕조설을 주장한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 에가미 나미오 도쿄대 명예교수를 초청, 에가미 교수의 원작으로 지난 95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가미민족국가' 3부작 시리즈에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4일 입수한 이 다큐멘터리에서 북한은 광개토태왕비, 고분벽

화, 산성, 역사전설, 각종 유적,문화재 등을 소개하며 고구려가 한민족의 독자적 국가임을 강조했다. 북한 문화성 소속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가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김일성훈장'까지 수여받아 고구려사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손색없으며, 일본 저명 학자의 입을 빌려 객관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눈에 띈다. 에가미 교수는 "2차대전후 내놓은 가미민족설은 사료 부족으로 고구려 부분을 간단히 언급했으나 반세기가

中 "이어도, 한국 관할 인정 못해"

동북공정 이어 한·중 해양분쟁 가시화

정부 당국자는 14일 중국 정부가 이날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측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이어도 수역은 한국측에 근접한 수역인 만큼 우리가 명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의 중국명)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라)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라면서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측의 행동이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은 없다"고 전제하고 중국은 이미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 문제 및 차례 협상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수년전 한국이 이 섬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문제로 한국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이는 이 섬이 속한 해역이 양국이 주장하는 EEZ가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일방적 행동이 아무런 법률적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중국은 이어도를 둘러싼 해양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하기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국가해양국의 2005년 해양행정 집행(執法)공보를 통해 지난해 중국 해양감시기가 이어도에 세워진 한국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 감시활동을 벌인 사실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도

인터넷 게임 즐긴다

시각장애인들이 웹 서핑이나 인터넷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탈리아 언론이 13일 전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폴리테크니코 대학 연구팀은 맹인들을 포함한 시각장애인들도 웹을 바탕으로 한 모든 멀티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 특허 출원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 발명품과 관련, "촉각과 청각에 자극을 주기 위해" 터치 스크린 서핑 및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을 결합시켰다고 덧붙였다. /제네바=연합뉴스

올브라이트 "악의 축과도 대화하라"

미국 민주당은 13일 미 의회에서 상·하 양원 지도부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이 참석한 합동기자 회견을 갖고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을 비롯해 이라크, 이란 등에 대한 정책 전환을 비롯해 미 국가안보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특히 이라크전과 관련, "우리는 이로 인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침공당하고, 갖고 있으면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셈이었다"며 "이라크전은 미국 외교정책에서 최대의 재난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계속 '악의 축'에 관해 얘기하는데, 진실은 이들 악의 축 3개 나라(북한, 이란, 이라크)와 우리의 관계가 과거보다 나빠졌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는 북한이나 이란과 얘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라크에선 혼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와 힘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외교란 약함이나 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대화하는 길이고 나라와 지도자들이 상호대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07년 대학 수시입학을 위한 중국어 초·중·고급 과정 모집. 리틀자이나 중국어학원. 모집기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의: 02-233-9582

(株) 행복출판. 행복출판은... 060-527-1388. www.happybooks.co.kr